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과 일꾼들이 됨**

10/21 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1:16

16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흠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주 나를 상쾌하게 하여 힘을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전 4:17

17 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빌 2:20

20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왕상 19:14, 18

14 엘리야가 말하였다. “제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언약을 저버리고, 여호와와 제단들을 무너뜨리며, 여호와와 신언자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18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칠천 명을 남겨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맞춤하지도 않은 이들이다.”

롬 11:5

5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스 9:8

8 이제 잠시나마 여호와 저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어, 피하여 남은 이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박힌 못을 저희에게 주신 것은,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밝히시고 속박 아래 있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느 1:3

3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 되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 있는 이들은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학 1:14

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분발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였다.

오네시보로는 일반적인 추세를 이기고 하락의 흐름에 대항하여 굳게 선 이기는 이였다. 그는 사도가 주님의 위임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대사(大使)의 영과 혼과 몸을 상쾌하게 했다.(딤후 1:16 각주 1)

디모데는 신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구약을 아는 면에서도 좋은 기초가 있었다. 그는 충분히 온전하게 되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심하게 하락해

가는 것에 대항하여 선 사람이었다.(딤후 3:15 각주 1)

빌립보서는 믿는 이들의 혼을 아주 많이 강조한다. 우리는 반드시 인격화 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해야 한다(빌 1:27). 우리는 반드시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2:2), 같은 혼이 되어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해야 한다(2:20-21). 복음의 일과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교통과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항상 우리의 혼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 특별히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롬 12:2). 이것은 우리가 몸의 생활 안에서 한 혼이 되고, 혼이 연결되고, 같은 혼이 되기 위한 것이다. (빌 2:20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초대 교회는 누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인정했다. 두 책의 문체를 비교해 볼 때에도, 누가가 저자인 것이 분명하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골 4:14, 비교 골 4:11), 아마도 아시아계 헬라인으로서 의사였을 것이다(골 4:14). 그는 드로아에서부터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여 바울의 마지막 세 번의 사역 여행에 동행하였다(행 16:10-17, 20:5-21:18, 27:1-28:15). 그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반자였다(몬 24, 딤후 4:11). 그러므로 누가의 복음서는 당연히 바울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마가의 복음서가 베드로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다(참조 막 1:1 각주 4 첫째 단락), (눅 1:3 각주 2)

바울은 환경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의 영을 주의했다. 그의 형제 디도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의 영 안에 안식이 없었다(고후 2:13). 나는 ‘내 영 안에’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우리는 자신의 영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인식을

갖고 영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기뻐한다면 영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슬퍼한다면 영 안에서 슬퍼해야 한다. 많은 때 우리는 단지 자신의 감정 안에서 기뻐한다. ... 우리는 영 안에서 기뻐하는 법과 영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영 안의 안식을 주의하고 영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고린도후서 4 장 13 절에서 바울은 그와 함께 있는 그의 형제들이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도까지 영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든 동일한 영을 갖고 동일한 영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혼이나 육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형제를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가야 한다. 교통을 나눌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교통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2 장 18 절에서 바울은 그와 디도가 동일한 영 안에서 행했다고 말한다. 이 절과 우리가 이미 교통한 다른 절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바울은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영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않았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 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2 장, 217-218, 2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 -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하심', 4, 6 장

10/22 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2:1-2

1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2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딤후 1:12-14

12 이런 이유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있으며, 내가 맡긴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키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3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강한 말씀의 본보기를 붙잡으십시오.

14 그대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지키십시오.

느 8:10

10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몹을 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고후 12:9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딤후 6:20

20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지키며, 속되고 헛된 말과 지식이라고 속여 말하는 반론을 피하십시오.

엢 3:2

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엢 4:29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벤전 4:10

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접종이다. ... 디모데후서 2 장 1 절부터 15 절까지는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다섯 가지 특별한 명칭들이 있다. ... 이 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와 자신의 동역자들을 마땅히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과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바로 직전 1 장에서 디모데에게 적은 내용에 근거하여 바울은 이어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격려한다(딤후 2:1). 바울은 여기에서 지식이나 은사로 말미암아 강해지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명령했다. ...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공급이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낙심하는 대신에 은혜로 강해졌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2-2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은혜가 다름 아닌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곧 아들 안에서 체현되신 아버지와 내주하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신 아들임을 깨달았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은 은혜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임을 가리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유일한 인격, 곧 과정을 거치셔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내주하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살아 있고 거룩한 인격이다. 이 영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은혜로 거하신다.

우리가 이 은혜로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 바울이 디모데후서 2 장 2 절에서 언급하는 것들은 1 장 13 절에 있는 건강한 말씀이다. 건강한 말씀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후, 그들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이 된다(딤후 1:14). 이 말은 한 지방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건강한 말씀을 맡게 되었다면, 그는 신실한 사람들 곧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그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갖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 이미 디모데에게 맡겨졌다는 것, 곧 그가 이미 은혜의 풍성으로 가르침 받고 양육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여 이러한 것들을 동일한 사역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신실한 다른 이들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풍성을 수행하기 위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나는 이 모든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을 통해 주님의 회복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은혜의 풍성을 받아들여 아름다운 것을 축적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때 이 풍성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주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경륜의 풍성을 온 땅에 걸쳐 확산시키는 만 명의 성도들이 주님께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보라.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의 때를 재촉할 것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며, 그 영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 또한 하나여야 한다. ...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회복 안에 있다. ...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오늘 회복의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 존재의 깊은 곳에서 순수한 양심으로 증언할 수 있다. 주님의 회복은 ‘그’ 길이다. ... 의견을 달리하고 떠나 버린 몇몇 사람들은 그들에게 교파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교파들이 그들을 받아들일지를 꺼릴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회복을 접촉하고 그 이후에 회복을 떠난다면 영적 자살을 범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 장 1 절과 2 절에서 바울에게 있던 부담은 디모데에게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받고 맡은 이로서 은혜의 풍성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풍성을 확산시킬 많은 교사들, 곧 많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3-2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유티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성경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 3 장

10/23 수요일

아침의 누림딤후 2:3-4

3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4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자기 생활 문제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14:8

8 또한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민 4:23, 30

23 삼십 세부터 오십 세까지, 봉사에 참여하여 회막에서 봉사를 수행하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어라.

30 삼십 세부터 오십 세까지, 봉사에 참여하여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어야 한다.

민 10:9

9 너희는 너희 땅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나팔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삿 7:18

18 나와 나를 따르는 이들이 나팔을 불거든, 여러분도 진영 주위에서 모두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십시오.”

딤후 6:12

12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르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사장 봉사가 민수기 4 장 23 절과 30 절과 35 절에서 군 복무, 곧 전쟁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사도는 그들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전쟁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싸우는 군인들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2 장 4 절에서 '생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bios)'인데, 이 단어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리킨다. 이 땅에서 주님의 권익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딤후 4:7), 땅에 속한 모든 얽매이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려고 힘쓰고 있을 때, 우리는 물질과 육체와 관련된 생활의 문제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 ... 제사장의 봉사는 한 면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한 면으로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는 싸움이다. 증거를 짚어지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은 이 증거를 공격하려는 이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4-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4 장 6 절부터 9 절까지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전투'라는 단어가 포함된 8 절을 삽입한다. ...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사기, 즉 싸우려는 하나 된 마음이다. 이러한 사기를 유지하려면 심지어 가장 사소한 문제에 관한 약간의 의견 차이도 제거되어야 한다. 만일 그 작은 의견을 달리하는 말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사기는 소멸되고 ... 그 군대는 분명 싸움 즉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 주님의 사역은 군대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것이다 (민 10:9, 삿 7:18). 주님의 사역은 전쟁의 문제이다.(참조 딤후 2:3 각주 1)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대항해 싸우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이라고 말한다(1:22-23). 에베소서는 또한 이 교회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사람임을 말한다(2:15-16). 더 나아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2:19), 그리스도의 아내 곧 그분의 배필이다(5:24-25).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결국 이와 같이 중대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원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여러 방면들로 사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받이(엡 6:14)와 방패(16 절)로 착용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리띠로 두르고(14 절),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어야 한다(15 절). 교회는 단지 함께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주 안에서 그분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우는 우주적이고도 신성한 군대이다.(장로 훈련, 개정판, 7 권,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한마음 한뜻, 6 장, 107-108 쪽)

나실인으로서 우리는 땅에 속한 즐거움을 멀리해야 하고, 주님의 머리의 권위아래 머물러야 하며, 죽음에 맞서 싸우기를 배워야 한다. 죽음은 어느 곳에나 있다. 인간 사회는 죽음의 세균들로 가득하다. 이 세균들이 심지어 교회생활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시간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고전 15:26)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나실인들이 싸우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실인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기 위해 계수된다. 그들은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들, 즉 죽음에 맞서는 전쟁에 대한 감각으로 총만한 사람들이다. 모든 교회 안에 죽음에 대한 감각과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죽음에 맞서 싸울 수 있다.(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장로 훈련, 개정판, 7 권,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한마음 한뜻, 6 장;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10

10/24 목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2:5

5 또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지 못합니다.

고전 9:25-26

25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26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권투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롬 8:13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계 2:10

10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딤후 4:6-8

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엡 5:26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벧전 5:4

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 장 5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한다. ... 디모데는 교사와 군인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또한 운동선수가 되어야 했다.

경기에 참가한 경주자가 빨리 달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때는 그가 인내심을 발휘할 때가 아니다.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경주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달려야 한다.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5-26 쪽).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들을 목양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벧전 5:4).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는 돌아오실 때 그분과 협력한 신실한 이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7 장, 15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다스리는 체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승천의 위치를 알고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질서에 따른 위치도 알고 지켜야 한다. 승천의 위치를 아는 것은 승천을 인식하는 체험이다. ... 질서에 따른 위치를 아는 것은 몸을 인식하는 체험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게 하신 승천의 위치와 그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질서에 따른 위치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 다음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스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는 것, 즉 모든 문제를 통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어떤 형제자매들은 다스리고자 하는 생각도 갈망도 없다. 그들의 영은 느슨하고 게으르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일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묻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저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파괴하도록 내버려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성장에 따라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느슨하고 기꺼이 다스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다스리는 체험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다스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의 영은 반드시 느슨하거나 소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원수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즉시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거역적이고 불법적인 문제들이 정복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스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있어서는 안 될 많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면, 교통을 위한 어떤 집회나 떡을 떼는 집회가 약하고 방향을 잡지 못한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기도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도 말하기를 주저했다. 오히려 많은 불필요한 기도와 무의미한 간증이 쏟아졌다. 그 결과 집회가 방해받았고, 형제자매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으며, 집회를 향한 마음이 식어 버렸다. 이런 상태를 야기한 주된 원인은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은 데 있다. 그들은 방관자처럼 처신하며 집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했다. 그들은 심지어 그러한 방식을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그 영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은 매우 영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 결과 그들 때문에 교회는 큰 손실을 입는다.

우리는 자주 어떤 집회가 매우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고 말한다. ... 집회가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사탄이 그곳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럴 때 누군가가 일어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려야 한다. 즉 말씀이나 찬송이나 기도를 통해 집회를 조절하고 분위기를 전환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여 사탄의 죽음을 삼켜 버려야 한다.(생명의 체험(하), 개정판, 17 장, 270-27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 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6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6, 8 장

10/25 **금요일**아침의 누림딤후 2:6-7

6 수고하는 농부가 수확물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7 내가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그대에게 깨닫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고전 3:9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눅 8:11

11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 7:38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 17:17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렘 23:28-29

28 꿈을 꾸는 신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이는 내 말을 신실하게 말하여라. 짚을 어찌 알곡에 견줄 수 있겠느냐?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29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디모데후서 2 장 6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농부에 비유한다. 군인은 승리해야 하고 운동선수는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농부는 열매 곧 양식을 묵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운동선수로서 우리는 빨라야 하지만 농부로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만일 조급함 때문에 농부가 아주 작은 싹을 뽑는다면 자신의 작물을 망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그가 그의 가축을 심하게 부린다면 그것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작물이나 가축 모두에 있어서 농부는 반드시 인내하기를 배워야 한다.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최전선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담대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을 위해 올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 지혜로운 주 건축자와 하나님의 건축물은 모두 생명에 속한 문제이자 생명 안의 문제이다. 첫째로, 바울의 사역은 심는 문제였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고전 3:6)라고 말한다. 이것은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성장하는 문제이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경작지이자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말한다(3:9). 이 농장은 황무지나 경작되지 않은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도록 하나님께서 경작하신 농장이다. 농장 역시 생명의 문제이다.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고전 3:9)이라고 말한다. 이 건축물은 틀림없이 생명에 속한 건축물이다. (장로 훈련, 개정판, 7 권,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한마음 한뜻, 7 장, 127-128 쪽)

베드로전서 2 장 2 절은 말씀을 젖이라고 부른다.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취하기 쉬운 부분은 젖이다. 이러한 부분은 또한 선한 말씀(히 6:5)과 은혜의 말씀(행 14:3, 20:32)이라고도 불린다. 우리가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읽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신선한 우유 한 잔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말씀의 다른 부분들은 더 무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스테이크를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더 무게가 있는 부분들은 히브리서에서 단단한 음식 (5:12)과 의의 말씀(13 절)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의 무게를 얻게 된다.

말씀을 맛보고, 호흡하고, 먹고, 젖으로 마시고, 단단한 음식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취하는 생명의 방식들이다.

이사야서 55 장 10 절과 11 절이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의하여 보라.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 눈이 하늘에서 내려 /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 땅을 적시며 / 싹을 내고 자라게 하여 /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씨를 주고 먹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듯, /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며 /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번영하게 하리라.” 말씀은 여름의 비와 겨울의 눈에 비유되는데, 이 비와 눈은 우리를 적셔 주어 열매 맺기 위한 씨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양식을 산출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체험에 대한 놀라운 그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우리 몸에도 건강을 가져다준다. 잠언 4 장 20 절부터 22 절까지는 “내 아들이,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 네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여라. / 내 말들은 그것들을 찾아 얻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 그들의 온몸에 치료제가 된다.”라고 말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질병의 원인은 대체로 근심이나 분노이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종종 질병이 사라진다.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기쁨이 밀려와 몸이 치료된다.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죽이고 부활을 가져온다. 그럴 때 우리는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몸이 건강해진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생명 메시지 1, 10장, 370-37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1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체험함, 5장

10/26 토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2:15

15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잘라 내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시 119:129, 130, 131-136

129 9 (폐) 주님의 증거들이 놀랍기에 제 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131 제가 입을 크게 벌리고 혈떡임은 주님의 계명들을 사모한 까닭입니다.

132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늘 하시던 방식대로 제게 돌이키시어 저를 은혜로이 대해 주십시오.

133 제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어떤 죄악도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134 사람들의 억압에서 저를 구속하시어 제가 주님의 법도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135 주님의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36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에 제 눈은 시냇물을 쏟아 냅니다.

디모데후서 2 장 15 절에서 바울은 예방접종하는 사람은 일꾼이어야 함을 보여 준다. 목수로서 이 일꾼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잘라 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부분을 조금도 왜곡되지 않게 올바르게 굳게 밝혀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목수가 나무를 굳게 잘라 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꾼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잘라 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하락할 때 매우 많은 진리들이 곡해될 뿐 아니라 뒤틀리고 치우친 방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8-2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말다툼’(딤후 2:14)과 ‘속되고 헛된 말’(2:16)과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가는 말’(2:17)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2:23)은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며(2:26), 교회가 하락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에 다툼을 불러일으키고(2:23), 듣는 사람들을 망쳐 놓으며(2:14), 경건하지 않은 데로 빠지게 하고(2:16),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2:18).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독을 예방하고, 죽음을 삼키며, 빛나간 사람들을 합당한 노선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밝혀진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곡해되지 않은 진리는 오직 진리의 얇은 방면뿐이다. 사실상 진리의 더 깊은 모든 항목들이 거의 왜곡되어 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잘라 내는 일꾼들 곧 목수들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리’는 단지 성경적인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과 실재를 가리킨다. 이 진리의 주요 요소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잘라 내기를 배워야 한다.

형제회의 어떤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잘라 내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이 성경을 여러 시대 곧 무지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부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들에 따라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시대별로 배열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2 장 15 절에서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잘라 내는 것에 관하여 의미한 바는 아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로 이루어진 세 권의 책에서 사용된 ‘진리’라는 단어는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 독자들은 디모데후서 2 장 15 절에서 바울이 진리에 대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를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사용된 쓰임새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3 장 15 절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한다. 이 진리는 경건의 비밀, 곧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교회는 이 진리 곧 이 실재를 짚어지고 붙들어 주어야 한다. 이 세 서신서에서 바울은 진리에 대하여 수차례

말한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2 장 4 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끄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2 장 15 절에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건강한 말씀을 가리킨다. 일꾼들로서 우리는 단지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는 것만을 배워서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얕은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밝혀 주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 서신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진리’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상고해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책들을 주의 깊게 상고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의 실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잘라 내는 것은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실재를 치우치거나 왜곡되지 않게 밝혀 주는 것이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29-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생명 메시지 1, 10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6장;

찬송: 723 (英) 짐 무거워 질 때 주 은혜 더 주셔

- 1 짐 무거워 질 때 주 은혜 더 주셔 더 고될 때 주 더욱 힘을 주셔
고난이 더할 때 주 긍휼 더 주-셔 시련이 많을 때 평안 더 주셔.
- 2 우리 인내 창고가 바닥났을 때 반나절도 못 되어 힘 없을 때
우리 수단 방법이 다 끝이 날- 때 아버지의 선물이 시작되네.
- 3 오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오 주님의 능력도 한량 없어
주 예수님 그분의 무한한 풍-성 곧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네.

10/27 주일

아침의 누림

출 28:36-38

- 36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다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새겨라.
- 37 그 패를 청색 실로 만든 끈으로 두건 위에 매되, 그것이 두건 앞쪽에 오게 하여라.
- 38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죄악을 아론이 짊어지게 하여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 그 예물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하여라.

출 29:6

6 그의 머리에는 두건을 씌우고, 그 두건에 거룩한 관을 덧씌워라.

약 1:12

12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거쳐 인정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벧전 1:15-16

- 15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 16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 26:16, 18, 20

-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20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